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14년도 제2차 상임위원회



일 시 : 2014년 7월 11일(금) - 12일(토)

장 소 : 원주교구 성지베론 순교자들의 집

주 최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주 관 : 천주교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목 차

I. 안내자료

I-1 2014년도 제2차 상임위원회 일정표	1
I-2 성지이용 안내	2 ~ 3
I-3 교구소개	4 ~ 23
1. 2014년도 교구장 사목교서	
2. 원주교구 소개 및 교구설정 50주년 관련자료 설명	
3. 교구 연혁	
4. 지구별 본당소개	
5. 교구 내 각 기관	
6. 교구 성지 및 유적지 소개	
7.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II. 나눔자료

II-1 활동 나눔 (각 교구, 단체별)	24 ~ 34
1. 서울대교구	
2. 대전교구	
3. 수원교구	
4. 제주교구	
5. 광주대교구	
6. 원주교구	
7. 한국 가톨릭 시각 장애인 선교 협의회	
8. 꾸르실료 한국 협의회	
II-2 상임위원회 회의자료	35 ~ 36

III. 전례자료

III-1 개막미사	37 ~ 41
III-2 파견미사	42 ~ 44
III-3 기도문 및 묵상자료	45 ~ 47

IV. 기타자료

IV-1 메모	
---------	--

안내 자료



지거 피터(1925-), '보호자이신 성령'

1. 보호자이신 성령(드로잉, 작가소장, 독일), 지거 쿨더(1925-)

[성화 설명]

독일 출생의 화가이며 신부인 지거 쿨더는 표현주의 기법으로 많은 성화를 제작하고 있다. 이 작품의 아래에는 헤로데의 칼날을 피해서 나귀를 타고 이집트로 피난 가는 성가정의 급박한 상황이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하늘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커다란 비둘기가 성가정을 보호하며 인도해 주고 있다.

성령은 성가정뿐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돌보는 보호자의 역할을 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성미술 감독 정웅모신부)

[말씀과 함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요한 14,15-17).

2014년도 제2차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상임위원회

일 시 : 2014년 7월 11일(금) ~ 12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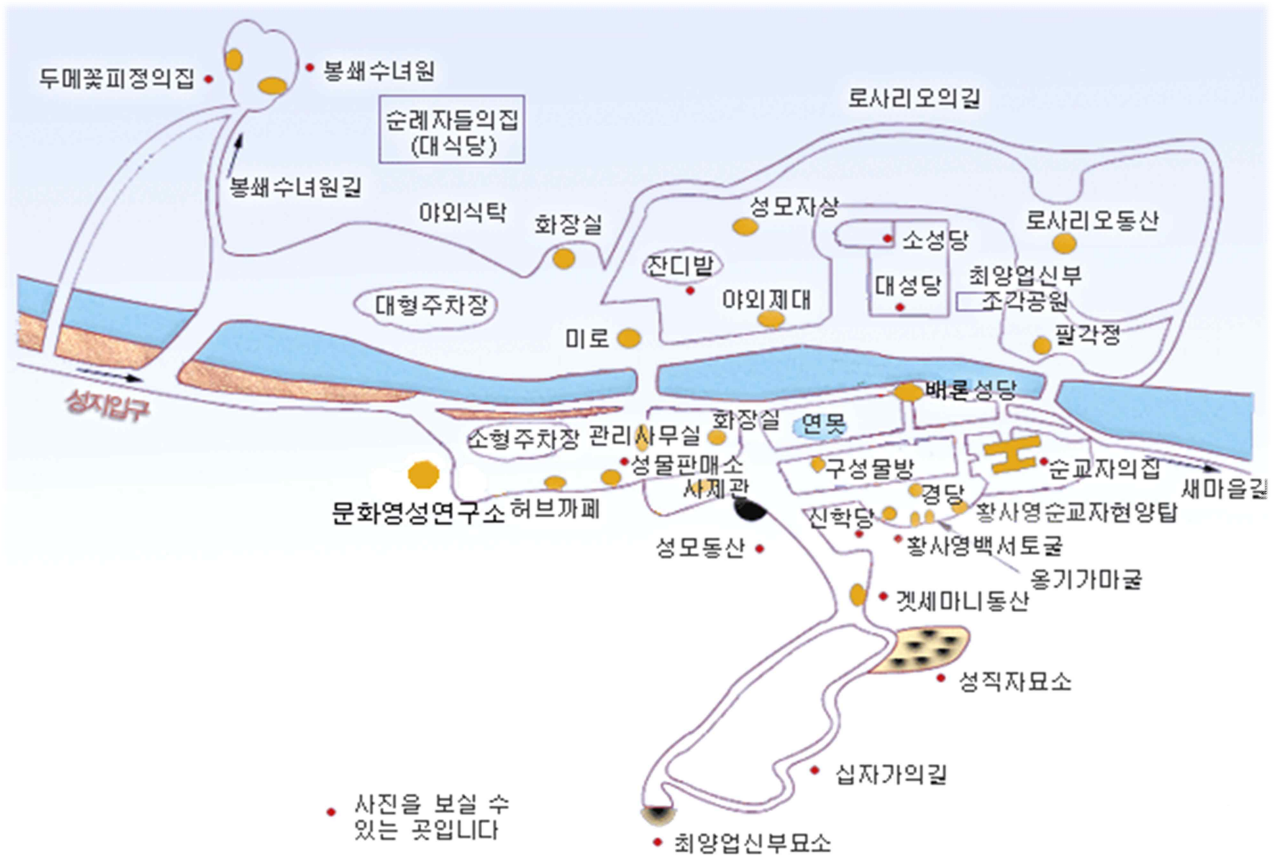
장 소 : 원주교구 성지배론 순교자들의 집

충북 제천시 봉양읍 배론성지길 296 ☎(043) 651-4527

일 정 표

월 일	시 간	내 용
7. 11(금) 첫째 날	15:00 ~ 15:30	접수, 방배정
	15:30 ~ 16:30	개막미사 (집전: 사목국장 김민규 요한 신부)
	16:30 ~ 17:30	특강: 김민규 요한 신부 (원주교구 사목국장)
	17:30 ~ 18:00	원주교구 소개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19:30	각 교구 및 단체 활동 나눔
	19:30 ~ 21:00	상임위원회
	21:00 ~ 22:30	친교의 시간
	22:30 ~	취 침
7. 12(토) 둘째 날	07:00 ~ 08:00	기상, 아침기도, 산책
	08:00 ~ 09:00	아침식사 및 집정리
	09:00 ~ 09:30	배론성지 소개: 여진천 폰시아노 신부 (배론 주임)
	09:30 ~ 10:30	배론성지 순례 (해설자와 함께)
	10:30 ~ 11:00	기념촬영 및 휴식
	11:00 ~ 12:00	파견미사 (집전: 원주교구장 김지석 야고보 주교)
	12:00 ~ 13:00	점심식사 (동원가든: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294-1)
	13:00 ~	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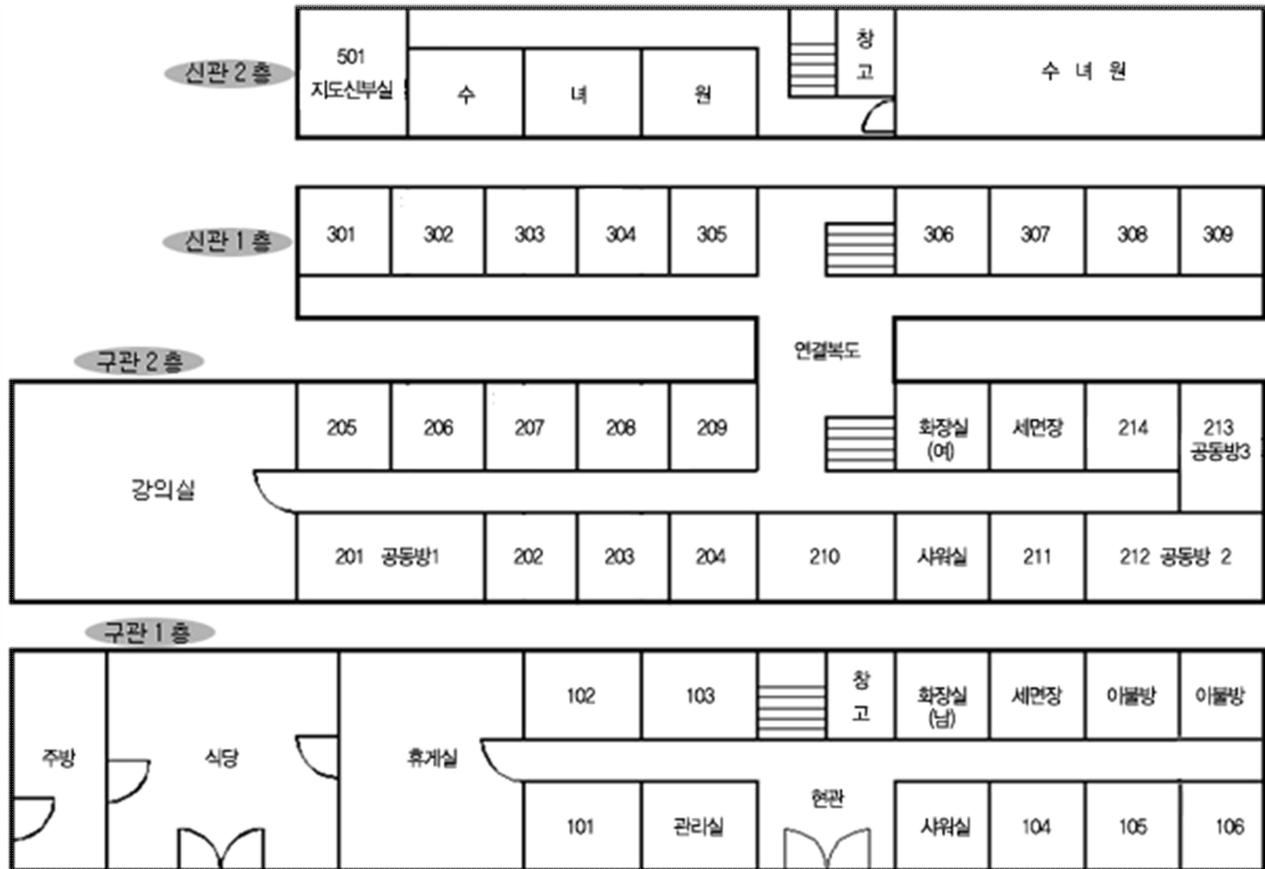
◆ 성지배론 관내 약도



◆ 장소 안내

- 미사 장소 : 개막미사 - 배론성당
파견미사 - 배론성당
- 강의 장소 : 순교자들의 집 구관 2층 강당

◆ 순교자들의 집 배치도



◆ 장소 안내

- 구관 1층 : 남자 화장실 전용
- 구관 2층 : 여자 화장실 전용
- 신관 1층 : 각 방 화장실
- 신관 2층은 수녀원이므로 사용불가.

MEMO



2014년도 교구장 사목교서

우리를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하느님

- 교우, 수도자, 성직자 일치의 해 -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1코린 13,13)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온 교회는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선포하신 ‘신앙의 해’를 마감하였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과 『가톨릭교회 교리서』 반포 20주년을 기념하여 선포된 신앙의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세속주의와 상대주의에 물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기반이요 그것은 시대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 ‘신앙의 해’가 우리에게 던져준 가르침이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현대 세계의 사람들을 ‘믿음의 문’으로 인도하고 새롭게 복음화하기 위한 소중한 결실이라는 것을 ‘신앙의 해’는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향해 나아가지만 ‘신앙’이라는 주제는 신앙의 해에만 잠깐 돌아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스스로에게 늘 새롭게 되묻는 화두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2005년 교구 설정 40주년을 지내며, 우리 교구는 2015년 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10년간의 사목목표를 3단계로 설정했습니다. 그 1단계로 ‘우리의 터전’을 살펴보는 의미로 ‘가정’(2006년), ‘이웃’(2007년), ‘환경’(2008년)이라는 주제로 첫 3년을 보내고, 2단계로 ‘우리의 교회’라는 주제 아래 ‘봉사하는 교회’(2009년),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2010년), ‘성사 안에서의 교회’(2011년)를 사목목표로 삼아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우리의 하느님’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우리 믿음의 기초이신 하느님’이라는 주제로 ‘선교의 해’(2012년)를, 그리고 지난 해에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느님’이라는 주제로 ‘청소년의 해’(2013년)를 보냈습니다.

이제 교구 설정 50주년이라는 축제를 준비하는 3단계의 마지막 해인 2014년을 맞이하면서, 올해는‘우리를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하느님’이라는 사목목표를 가지고‘교우, 수도자, 성직자 일치의 해’로 지내고자 합니다. 교구 설정 50주년이 되는 축제의 2015년을 준비하는 마지막 3년을 믿음, 희망, 사랑의 해로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1코린 13,13)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서로 떨어질 수 없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사랑으로 여깁니다.”(로마 5,2)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은총을 입어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사랑을 통하여 실현됩니다.

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울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면,

그 거울은 희망을 비추어 줍니다.”

믿음이라는 거울이 있으면 희망을 바라 볼 수 있기에 좀 더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거울이 있더라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거울은 희망을 비추어 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사랑을 추구하도록 코린토 전서 13장을 통하여 아주 절절하게 그리고 참으로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요한 사도 또한 그 어떤 표현보다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느님의 정체를 드러내며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1요한 4,17)

이보다 더 명확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느님에게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내는 기준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대상을 지향합니다.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신명 6,5)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사람이 되어 오시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신앙의 기본 행위들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주일을 지키십시오.
성사생활에 참여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생활을 실천 하십시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져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48)

하느님을 닮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니(창세 1,26)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나 자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온 존재요, 참으로 고귀한 생명”임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바탕입니다.

스스로를 무시하거나 핍박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무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무시 받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돌보며 존중하십시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다른 사람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

예수님은 누누이 서로 사랑하도록 당부하십니다.

먼저 내가 머무르는 곳에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참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찬가(1코린 13,4-7)의 내용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이들을 향해 우리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심판 때에 소외된 이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그 심판의 기준임을 명확히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소외된 이들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동아줄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일치를 지향합니다.

우리의 모상이신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하기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일치를 지향해야 하고 그것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참다운 교회 공동체로서 교우들과 수도자, 성직자들의 일치라는 것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며 하나로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1요한 4,7-8)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수도자, 성직자 여러분,

성경은 50년째 되는 해를 ‘히년’이라 말하며 거룩한 해로 선포합니다.(레위 25,8-22)

2015년은 우리 원주 교구 설정 50주년이 되는 해로 ‘원주 교구의 히년’이라 할 것입니다.

이 히년이 교구의 참다운 축제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올 한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교구의 모든 교우들과 수도자, 성직자들이 신앙 안에서 일치하여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삶으로 그 기쁨을 드러내 왔던 것처럼 올 한 해 더욱 일치하여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완성하실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더욱 닮아가는 원주 교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사랑에 내어 맡기도록 합시다.

살아가는 동안 스러져 버릴 것들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느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와 함께 머무르게 될 것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을 통해 키워 나가는 사랑이야말로 언젠가 우리를 하느님 곁에 영원히 머무르게 해 줄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습니다.”(1코린 13,8)

2013년 12월 1일 대림 첫 주일에

천주교 원주교구장 김지석 야고보 주교

교황 바오로 6세는 1965년 3월 22일 춘천교구를 분리하여 원주교구를 설정하였다. 이는 교황 청령 2106-66호에 의한 것인데 한국에서는 14번째(북한의 평양, 원산, 함흥을 제외한 남한에서는 11번째)로 설정된 교구이다. 특히 원주교구의 설정은 1962년 10월부터 시작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5년 12월 끝나 갈 무렵에 설정되어 그 의미가 자못 크다. 이 공의회가 끝나 갈 무렵에 교황 바오로 6세는 한국 교회가 날로 크게 발전하고 있음을 알고, 춘천교구의 일부 지방을 분리하여 원주교구를 설정하고 초대 교구장에 지학순(池學淳, 다니엘, 45세) 신부를 임명하였다.

원주교구 설정 당시의 관할구역은 강원도의 남부지역인 원주시, 원성군, 영월군, 삼척군, 정선군과 경북의 울진군 등 1개 시 5개 군으로 교세는 13개 본당과 교우 수 13,390명이었다. 그리고 교구 소속 성직자는 한국인 9명과 11명의 콜롬바노회 소속 신부 등 20명이었다.

1965년 6월 29일, 원동 성당이 주교좌성당이 되고, 지학순 신부의 주교 성성식과 원주교구 설정 및 교구장 착좌식이 거행되므로써 원주교구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는데, 지학순 주교는 한국인으로서는 열 번째 주교이다. 이같이 교구장에 취임한 지학순 주교의 문장(紋章) 표어는 ‘빛이 되라’이다.

원주교구는 1988년 6월 7일,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설립인가를 받아 이후 전국에서 제일 작은 교구이지만 사회복지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990년 6월 24일, 교구 설정 25주년 신앙대회가 진광학교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 날의 행사는 교구 25주년 역사 안에서 함께 해 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모든 신자들이 감사드리며, 지역 사회 안에서 성장해 온 교구 신자들의 의지를 봉헌하고, 기념축제를 통해 교구와 교구장의 은경축을 축하하는 기쁨의 자리였다. 1990년을 마감하기 전, 교구에서는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막 지내고 부주교 탄생이라는 소식을 받게 되어 또 한 번 교구에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1990년 11월 28일, 교황청은 황지 본당 김지석 야고보 신부가 1990년 11월 19일자로 교황 요한바오로 2세에 의해 원주교구 계승권을 가진 부주교(副主教)로 임명되었음을 발표하였다. 김지석 야고보 주교는 1991년 1월 14일, 진광학교에 마련된 임시성전에서 주교에 서품되었고, 즉시 총대리에 임명되어 교구의 전반적인 통치에 교구장을 보필하게 되었다. 김지석 야고보 주교의 사목표어는 “항상 기뻐하라”이다. 동년 10월 18일 교구장 지학순 주교가 지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이래 병세가 호전되지 않음에 따라서 김지석 주교는 교구장이 해야 할 주교 예절과 기타 의식들을 집행하게 되었다.

초대 교구장 지학순 주교가 가난한 자와 노동자, 농민을 위하여 대 정치적·사회적 투쟁을 위해 옥고를 치루는 한편 이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적 역할을 하다가 건강의 악화로 1993년 3월 12일 선종하자, 이미 교회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특수한 권한을 갖는 부주교에 취임한 바 있는 김지석 주교는 그 즉시 교구장을 계승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제 2대 교구장이 되었다.

교구장 김지석 주교는 지나간 교구의 역사적 반성과 함께 미래 교회상 구현에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밝히면서 “2000년대를 향한 사목과제”를 발표하면서 지역교회인 교구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선포라는 실질적 선교사명을 효과 있게 전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사목방법을 연구개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1965년에 탄생한 원주교구는 2015년에 교구 설정 50주년 대희년을 맞이하게 된다. 현재 ‘일어나 걸으시오’라는 주제로 교구설정 5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님께 감사 기도와 함께 교구 발전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원주교구 설정 50주년 관련 자료 설명

오는 2015년은 원주교구 설정 5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 원주교구의 ‘희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축제의 해를 더욱 뜻 깊게 준비하기 위해 전 교구민이 함께 기도를 바치며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임을 다시금 인식하고 다가오는 희년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교구에서는 전례력이 새로이 시작하는 2014년 11월 30일 대림 1주일부터 내년 2015년 그리스도왕 대축일까지를 희년으로 선포하고, 희년이 지니고 있는 정신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먼저 대림 1주일에는 교구내 각 본당에서 희년을 선포하는 미사를 봉헌하게 된다. 그리고 내년 5월 31일에는 신앙대회를 통해 우리 교구민의 하나됨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며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희년 폐막미사를 통해 마무리 하게 된다.

원주 교구설정 50주년
일어나 겠으시오.



BASIC SYSTEM

02. 심볼마크

DIOCESE OF WONJU SIGNATURE DESIGN



심볼마크 기본형태



심볼마크 색상변전

중심의 십자가에서
여러줄기로 휘어 나가는 모습은

1. 물줄기가 산 정상에서부터 퍼져 흐르듯
산골 깊숙이 있는 성지와 신자들을 성령이
보살피시고

2. 다시한번 중간에 위치한 십자가는 우리
안에 계심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1. 배론, 배밀의 모티프를 대입하여 가장 중점적인 이미지를 완성한다.
2. 주교관과 비슷하여 카톨릭 전반을 상징한다.
3. W형태를 가져 Wonju원주를 기억하기 쉽다.
4. 두 손으로 십자가를 감싸고 기도하는 신자

연도	월	일	내 용
1965	3.	22	원주교구 설정 (춘천교구에서 분리) - 본당 13개 신자 16,232명 성직자 20명(한국인 사제 9명)
	6.	29	초대 교구장 지학순 주교 성성 및 착좌
	9.	8	마차 본당 신설 ('68. 7. 17 영월 본당 관할 공소로 됨)
	10.	7	평창 본당 신설 (대화는 평창 본당의 공소가 됨)
	12.	10	도계 본당 신설
1966	10.	5	황지 본당, 사직리 본당 신설
1967	4.	20	재단법인 천주교 원주교구 유지재단 설립 인가
	9.	26	진광중학교 개교 (진광고등학교 '73. 3. 1 개교) - '69. 3. 27 학교법인 진광학원 설립 인가
1968	2.	11	교구청 상서국 신설
	7.	12	원주 가톨릭센타 개관
1969	5.	1	횡성, 풍수원, 평창 (춘천교구 소속 3개) 본당과 남천동, 의림동, 단양 (청주교구 소속 3개) 본당이 교구 편입 올진 본당을 안동 교구로 이관
	12.	17	교구사목위원회 구성 ('77. 3. 26 평신도사도직협의회로 개편)
1970	7.	9	원주방송주식회사(現 원주MBC) 설립에 참여
1971	10.	5	사회정의 구현 및 부정부패 규탄 대회
	12.	5	원주지구 부녀회 결성 ('75. 10 교구 여성연합회로 개편)
1972	5.	26	봉산동 본당 신설
	8.	18	남한강 대홍수로 인하여 재해대책위원회 발족 ('79. 11. 1 사회개발위원회로 개편)
1974	7.	6	교구장 지학순 주교, 유신헌법 반대로 투옥, 양심선언(7. 23)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선고 '75. 2. 17 형집행정지 출옥)
1976	4.	19	일산동 본당 신설
	5.	23	최창규 신부 선종
	7.	11	선종완 신부 선종
	7.	26	성지 배론 개발위원회 구성, 개발 사업 착수
	10.	20	고한사북 본당 신설
1979	3.	13	단양 본당 매포 공소를 본당으로 승격
	4.	15	제천 가톨릭회관 개관
	4.	19	교구청 상서국을 사무처, 관리국, 사목국으로 확대 개편
1980	1.	22	서부동 본당 신설
1981	9.	10	태장동 본당 신설
1982	4.	3	양기섭 신부 선종
1983	5.	18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철수 (한국인 사제로만 구성된 첫 교구가 됨)
	11.	1	사회개발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사회사업국 신설 ('90. 2. 8 사회선교국으로 개칭)
1984	4.	13	교구 사회복지사업후원회 결성
1988	6.	7	사회복지법인 원주 가톨릭 사회복지회 설립
	6.	20	풍수원 본당 설정 100주년 기념 미사 봉헌
	9.	16	고한사북 본당을 분리하여 사북 본당 신설
1989	11.	7	장애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천사들의 집' 개원
1990	2.	8	청전동 본당 신설
	6.	24	교구 설정 및 지학순 주교 성성 25주년 기념 신앙대회

연도	월	일	내 용
1991	1.	14	김지석 주교 성성 및 부주교 취임
1992	1.	28	천곡동 본당 신설
			서부동 본당 백운 공소를 본당으로 승격
1993	3.	5	상동 본당을 (항지 본당 관할) 공소로 함
			평창 본당 대화 공소를 본당으로 승격
	3.	12	지학순 주교 선종
	6.	15	김지석 야고보 주교, 제2대 교구장 계승
1994	2.	2	형성 본당 둔내 공소를 본당으로 승격
	3.	2	양대석 신부 선종
1995	2.	21	우산동 본당 신설
	9.	23	교구청 기구에 교육국 신설 ('99. 11. 28 청소년국으로 개편)
1996	6.	6	제73차부터 풍수원 성체현양대회를 춘천교구와 공동 거행
	10.	24	주교좌 원동 본당 설정 100주년 기념 미사 봉헌
1998	2.	17	구곡 본당 신설
1999	1.	1	이병돈 신부 선종
	9.	20	성지 배론 최양업 신부 기념 대성전 봉헌식
2000	1.	25	정선 본당 여량 공소를 아우라지 본당으로 승격
2001	1.	16	의림동 본당 주천 공소를 본당으로 승격
2002	1.	17	태장동 본당 소초 공소를 본당으로 승격
	7.	1	이영섭 신부 선종
	12.	12	조응환 신부 선종
2003	9.	19	문막 본당 부론 공소를 본당으로 승격
2004	2.	12	신백동 본당 신설
	5.	5	용소막 성당 100주년 기념 미사 봉헌
	8.	20	태장1동 본당 신설
	11.	3	성지 배론 최양업 신부 조각 공원 봉헌식
2005	2.	27	배론, 영산 준본당 신설
	3.	21	교구 설정 40주년 기념 미사 봉헌
2007	3.	21	흑빛공부방 (고한청소년문화센터) 준공
2008	5.	13	김종태 신부 선종
	8.	19	형성 본당 청일 공소를 본당으로 승격
	8.	25	노세현 신부 선종
	9.	10	병원·교정·경찰·법조인 사목 담당 신설
2009	9.	9	원동 본당 흥업 공소를 본당으로 승격
2010	9.	3	배론, 영산을 본당으로 승격
			둔내 본당 안흥 공소를 본당으로 승격
	11.	12	대안리 공소 100주년 기념식
2011	3.	10	원주교구 교리신학원 개원
	3.	12	성지 배론 문화영성연구소 및 지학순 주교 기념관 개관
	9.	2	명륜동 본당 신설
2012	4.	5	아우라지 본당 임계 공소를 본당으로 승격
	7.	6	본당 양업 시스템 개통
2013	8.	23	원주 가톨릭 사회복지회 25주년 기념 미사 봉헌
	12.	24	안승길 신부 선종
2014	2.	18	조규남 신부 선종

지 구	본 당	공 소
원주 1지구	주교좌 원동성당	
	단구동성당	
	봉산동성당	
	일산동성당	
	구곡성당	후리사공소
	용소막성당	학산공소, 황둔공소
	흥업성당	귀래공소, 대안리공소, 술미공소
원주 2지구	명륜동성당	
	학성동성당	간현공소, 만종공소, 월송공소, 신평공소
	태장동성당	
	태장1동성당	
	우산동성당	
	문막성당	
	부론성당	
횡성지구	소초성당	
	영산성당	곤의골공소
	풍수원성당	창촌공소, 금대공소, 오상골공소, 새점터 공소
	횡성성당	정금공소, 우천공소, 공근공소, 도곡공소
	둔내성당	
제천지구	청일성당	갑천공소, 추동공소
	안흥성당	
	남천동성당	청풍공소, 덕산공소
	의림동성당	쌍용공소
	서부동성당	원박공소
	청전동성당	
	신백동성당	어상천공소
	백운성당	
태백지구	단양성당	울산공소, 영춘공소
	매포성당	
	배론성당	
	장성성당	석포공소, 철암공소
	황지성당	상동공소
	고한성당	
	사북성당	증산공소, 남면공소
	영월성당	마차공소
영평정지구	주천성당	
	대화성당	
	평창성당	
	정선성당	화암공소, 남평공소, 북평공소
	아우라지성당	문래공소
	함백성당	
	임계성당	
영동지구	성내동성당	근덕공소
	사직동성당	호산공소, 용화공소
	도계성당	
	북평성당	삼화공소
	천곡동성당	

산 하 기 관

명 칭	지역	전 화	우편번호	주 소
성지배론	043	사제 651-3408, 수녀 653-4527 사무 651-4527, Fax 651-9317 두메꽃피정의집 651-7523 순교자들의집 653-4527	390-873	제천시 봉양읍 배론성지길 296(배론) http://www.baeron.or.kr E-mail : baeron@kornet.net
진광고등학교	033	교장 742-5351 교무 742-7315 행정 742-2969, Fax 742-2961 종교실 748-3930	220-955	원주시 진광길 50(우산동) http://jinkwang.hs.kr E-mail : syhantit@kornet.net
진광중학교	033	교장 742-8674 교무 742-3831, 742-6772 행정 742-9098, Fax 746-3440	220-955	원주시 진광길 50(우산동) http://jinkwang.ms.kr E-mail : chiacsan@chol.com
원주가톨릭센터	033	사무 764-2946, 765-2946 식당 764-3668	220-070	원주시 원일로 28(인동)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지학순다니엘장학회	033	사무 765-1915, Fax 764-7782	220-070	원주시 원일로 28(인동) E-mail : wjph1915@kornet.net
정의평화위원회	033	사무 592-8445, 사제 592-2817 Fax 592-3896	233-903	정선군 사복읍 사복중앙로 51-5
聖音樂위원회 가톨릭聖音樂연구소	033	사제 731-0105, 사무 764-9118	220-070 220-950	원주시 원일로 28, 308(인동) (사무) 원주시 개륜1길 63 천사들의 집(사제) E-mail : emmauslee@hanmail.net
이주사목위원회	033	사제 744-6617	220-950	원주시 봉산로 103(봉산동)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민족화해위원회	033	사무 762-2513	220-948	원주시 한지공원길 101(명륜동) http://cafe.daum.net/wjhana
꾸르실료사무국	033	사무 765-9616	220-070	원주시 원일로 28, 309(인동) E-mail : pjh7431977@hanmail.net
한빛터	033	사무 764-3669	220-070	원주시 원일로 28(인동)
강원도청소년 활동진흥센터	033	사무 731-3704, 731-4704 Fax 731-5704	220-010	원주시 중앙로 89(중앙동) 시민복지센터 4층 http://www.gyvc.or.kr E-mail : KYVC@chollian.net
가톨릭병원	033	사무 745-5412, 743-5412 Fax 748-5413	220-963	원주시 남산로 199(학성동)
성바오로딸서원	033	사무 765-3990, Fax 761-5004	220-070	원주시 원일로 28(인동) http://www.pauline.or.kr E-mail : fsp100@pauline.or.kr
원주문화방송	033	대표 741-8210, Fax 741-8149	220-963	원주시 학성길 67(학성동) http://www.wjmbc.co.kr E-mail : passion4u@hanmail.net
맹방휴양소	033	사무 574-2273	245-833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길 398-11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지역별 산하시설

■ 법인사무국

명 칭	우편번호	주 소	전 화	팩 스	비 고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법인사무국	220-950	원주시 개륜 1길 63 (봉산동 753-1)	033)731-4557	033)731-4559	

■ 원주시 지역

시 설 명	대상	시설종류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 스	비 고
갈거리사랑촌 베닉노의집	장애인	장애인생활시설	220-841	원주시 흥업면 대안로 738 (대안리 1408-2)	033)763-1370	033)763-0518	
갈거리사랑촌 아네스의집	노인	양로시설	220-841	원주시 흥업면 대안로 738 (대안리 1408-2)	033)763-1370	033)763-0518	
강원도중앙여자 청소년센터 (루치아센터)	여자 청소년	여자청소년센터	220-963	원주시 원문로69번길 23 (학성동 1023-76)	033)735-1320	033)735-1352	
분도의집	장애인	장애인공동생활 가정	220-950	원주시 행구로 102 (봉산동 1201-2) 동신A 105-1204	033)742-8606	033)742-8605	
십시일반	노인	무료급식	220-010	원주시 중평길 32-6 (중앙동 102-1)	033)742-8981~2	033)744-4259	
안나의집	노인	노인공동생활가 정	220-950	원주시 개륜1길 63 (봉산동 753-1)	033)746-8700	033)744-1192	
예샘의집	장애인	장애인공동생활 가정	220-950	원주시 행구로 102 (봉산동 1201-2) 동신A 104-101	033)748-1008		
원주가톨릭종합 사회복지관	지역 주민	사회복지관	220-950	원주시 봉산로 103 (봉산동 950)	033)744-6617	033)731-2989	부설 기관 포함
원주가톨릭노인 복지센터	노인	재가노인복지 시설/주간	220-950	원주시 봉산로 103 (봉산동 950)	033)744-6618	033)731-2989	
가톨릭노인복지 센터	노인	재가노인복지 시설/방문	220-950	원주시 봉산로 103 (봉산동 950)	033)746-3473	033)731-2989	
가톨릭꿈나무 지역아동센터	아동	지역아동센터	220-950	원주시 봉산로 103 (봉산동 950)	033)744-6617	033)731-2989	
엔젤어린이집	아동 보육	어린이집	220-950	원주시 봉산로 103 (봉산동 950)	033)731-1123	033)731-2989	
원주노숙인센터	노숙인	노숙인센터	220-963	원주시 원일로 250 (학성동 899-9)	033)746-1206	070-8233-0370	
원주시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장애인보호작업 장	220-922	원주시 호저면 광학로 89 (광격리 628)	033)731-7863	033)731-7860	
원주지역자활 센터	기타	지역자활센터	220-964	원주시 갈머리2길 31 (학성동 223-73) 301	033)765-0945	033)765-0946	부설 기관 포함
딸내미재가장기 요양기관	노인	재가노인복지 시설/방문	220-931	원주시 치악로 1735번길 10(개운동 255-2)	033)744-1552	033)766-1553	
원주청소년의집	아동	공동생활가정	220-931	원주시 개운4길 55-3 (개운동 203-50)	033)763-8269	033)761-3770	
천사노인요양원	노인	노인요양시설	220-950	원주시 개륜1길 63 (봉산동 753-1)	033)747-8555	033)747-8557	부설 기관 포함
천사노인복지센터	노인	재가노인복지 시설/방문	220-950	원주시 개륜1길 63 (봉산동 753-1)	033)747-8555	033)747-8557	

■ 원주시 지역

시 설 명	대상	시설종류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 스	비 고
장주요요셉재활원	장애인	장애인생활시설	220-922	원주시 호저면 광학로 89 (광격리 628-2)	033)731-7857~8	033)731-7859	
행복의집	장애인	장애인체험홈 (장주요요셉재활원)	220-781	원주시 시청로 88(무실동 1644) 주공아파트 401-203	033)734-5208		
중앙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청소년문화의집	220-904	원주시 중앙로 89 (중앙동 118-3 시민복지센터)	033)734-3688	033)734-3689	
천사들의집	장애인 (경증)	장애인생활시설	220-950	원주시 개륜1길 63 (봉산동 753-1)	033)731-1004	033)731-1005	
천사장애인보호 작업장	장애인	장애인보호작업 장	220-950	원주시 개륜1길 65 (봉산동 765)	070-8255-0614	070-8255-0613	
천사장애인요양원	장애인 (중증)	장애인생활시설	220-950	원주시 개륜1길 63 (봉산동 753-1)	033)743-1004	033)731-1005	

■ 제천시 지역

시 설 명	대상	시설종류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 스	비 고
봉양사랑의집	노인	양로시설	390-875	제천시 봉양읍 제원로2길 39(장평리 818-1)	043)647-8247	043)648-8247	
살레시오의집	장애인	장애인생활시설	390-873	제천시 봉양읍 배론성지 3길 24(구학리 541)	043)651-3456	043)651-3457	
사랑이네	장애인	장애인공동생활 가정	390-775	제천시 봉양읍 제원로2길 7 (주포리 235) 중앙A 804-207	043)643-1506	043)651-3457	부설 기관 포함
소망이네	장애인	장애인체험홈 (살레시오의집)	390-250	제천시 바이오밸리로 202 (왕암동 905) 현진에버빌 102-205	043)651-7526	043)651-3457	
행복이네	장애인	장애인체험홈 (살레시오의집)	390-250	제천시 바이오밸리로 202 (왕암동 905) 현진에버빌 102-203	043)651-7527	043)651-3457	
살림터	장애인	장애인보호 작업장	390-873	제천시 봉양읍 배론성지 3길 24(구학리 541)	043)653-7522	043)653-7521	
제천가톨릭복지관	지역 주민	사회복지관 /미신고	390-030	제천시 명륜로13길 3 (의림동 32-1)	043)643-2871	043)648-3871	
제천시건강가정 지원센터	가족	건강가정지원	390-030	제천시 명륜로13길 3 (의림동 32-1)	043)645-9995	043)648-3871	
지역아동센터 아하공부방	아동	지역아동센터	390-030	제천시 명륜로13길 3 (의림동 32-1)	043)643-2871	043)648-3871	
제천시노인종합 복지관	노인	노인복지관	390-012	제천시 독순로 65 (중앙로 2가 26-1)	043)652-3457	043)652-3459	

■ 태백시 지역

시 설 명	대상	시설종류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 스	비 고
대건의집	아동	공동생활가정	235-010	태백시 서항지로 10 (황지동 25-25)	033)553-3488	033)553-3487	

영월군 지역

시 설 명	대상	시설종류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 스	비 고
영월군건강가정 지원센터	가족	건강가정지원센 터	230-808	영월군-읍 단종로 12 (영흥리 975-2) 4층	033)375-8400	033)372-4790	
영월군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가족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230-808	영월군-읍 단종로 12 (영흥리 975-2) 4층	033)372-4769~ 70	033)372-4790	
영월군노인요양원	노인	노인요양시설	230-853	영월군 주천면 다래골길 51(도천리 75)	033)373-5300	033)373-5335	
영월군종합사회 복지관	지역 주민	사회복지관	230-808	영월군-읍 단종로 12 (영흥리 975-2)	033)375-4600	033)375-0090	

정선군 지역

시 설 명	대상	시설종류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 스	비 고
대철베드로의집	아동	공동생활가정	233-807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245-11 (복살리 745-1) 현대A 101-604	033)563-1413	033)563-1413	
모니카의집	노인	양로시설	233-834	정선군 남면 무릉4로 35-8(무릉리 608-10)	033)591-5224	033)591-0531	
정선군노인요양원	노인	노인요양시설	233-803	정선군 정선읍 와평2길 1-77(신월리 869-1)	033)562-5566	033)562-7016	
정선군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가족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233-804	정선군 정선읍 봉양7길 16(봉양리 144-5)	033)563-3458	033)563-3460	
정선군종합사회 복지관	지역 주민	사회복지관	233-804	정선군 정선읍 봉양7길 16(봉양리 144-5)	033)563-2922	033)563-2923	
정선프란치스코 의집	장애인	장애인생활시설 /중증	233-803	정선군 정선읍 와평2길 1-67(신월리 866)	033)562-1001	033)562-8664	
흑빛지역아동센터	아동	지역아동센터	233-811	정선군 고한읍 고한10길 28-8(고하리 63-46)	033)591-6385	033)591-6384	

▣ 평창군 지역

시 설 명	대상	시설종류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 스	비 고
소화어린이집	아동/ 보육	어린이집	232-806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21(중리 355-5)	033)332-3460	033)333-7281	

▣ 횡성군 지역

시 설 명	대상	시설종류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 스	비 고
요셉어린이집	아동/ 보육	어린이집	225-831	황성군 둔내면 둔방로14 번길 27(둔방내리 580-2)	033)344-1214	033)344-4866	
황성군종합사회 복지관	지역 주민	사회복지관	225-808	황성군 황성읍 아수로 46 (읍하리 500-1)	033)345-3450~2	033)345-3460	부설 기관 포함
황성노인주간보호 센터	노인	재가노인복지 시설/주간	225-808	황성군 황성읍 아수로 46 (읍하리 500-1)	033)345-3470	033)345-3460	
황성노인복지센터	노인	재가노인복지시 설	225-832	황성군 둔내면 둔내로 93 (자포곡리 423-3)	033)344-7170~2	033)344-1144	
황성군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가족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225-808	황성군 황성읍 아수로 46 (읍하리 500-1)	033)344-3458~9	070)8290-0544	
큰빛어린이집	아동 /보육	어린이집	225-808	황성군 황성읍 아수로 35 (읍하리 385-59)	033)345-3453-4	033)344-3455	
황성지역자활센터	기타	지역자활센터	225-808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231-2	033)345-7131~2	033)345-7133	

교구 내 복지시설 및 기관

명 칭	우편번호	주 소	전 화	팩 스	E-mail/Web
제천종합 사회복지관	390-240	제천시 용두대로 23길 14 (하소동)	043)644-2983	043)644-2987	http://www.jcswc.or.kr jcswc@hanmail.net
제천지역 자활센터	390-120	제천시 의림대로 43 (영천동)	043)648-2983	043)648-3983	jcwork@hanmail.net
사랑의집	220-100	원주시 원문로 294 (단계동)	033)743-5411	033)743-2327	http://www.wonjuserang.org/ 원주요양원.kr sarang5411@hanmail.net
실비노인 요양원	220-100	원주시 원문로 294 (단계동)	033)742-6080	033)744-6081	http://www.wonjuserang.org/ 원주요양원.kr sarabg6080@hanmail.net
정보나벤틀라 노인요양원	390-170	제천시 명지로 86-1 (명지동)	043)642-8062	043)642-8063	http://www.sbncenter.org sbncenter@hanmail.net
애네아의집	220-160	원주시 덕성길 22 (행구동)	033)747-8150	033)734-8150	enea83@hanmail.net
강원도청소년 활동진흥센터	220-010	원주시 중앙로 89 시민복지센터 4층	033)731-3704 731-4704	033)731-5704	http://www.gyvc.or.kr KYVC@chollian.net
성바오로 다문화가정센터	220-944	원주시 단구초교길 6-27 (단구동)	033)761-3747	033)761-3746	spdamunwha@naver.com

◆ 성지 배론 ◆



주 소 : 390-870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구학2리 644-1
연락처 : (043)651-4527

성지 배론은 한국 천주교회사에 길이 빛날 역사적 사건과 유적을 간직한 뜻 깊은 곳이다. 배론은 치악산 동남 기슭에 우뚝 솟아 있는 구학산과 백운산의 연봉이 둘러싼 험준한 계곡 양쪽의 산골 마을로 골짜기가 배 밑처럼 생겼다고 하여 배론이라 불리어졌다. 이곳은 오직 하느님만을 선택한 한국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들어와 화전과 웅

기를 구워서 생계를 유지하며 신앙을 키워 나간 교우촌이다. 1784년 이 땅에 천주교가 전래된지 얼마 안 되어 1791년 신해교란이 일어나자 교우들이 심심산골인 이곳으로 피난해 와서 농사와 웅기 구이로 살아가며 6개의 교우촌을 이루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곳이다.

❖ 진사 황사영(알렉시오)이 북경 주교에게 보내는 백서를 쓴 역사의 땅 황사영 알렉시오는 1774년 당시 유명했던 창원 황씨 가문에서 나고, 자는 덕소요, 어려서부터 총명과 재덕이 남달리 뛰어나 이미 16세에 과거를 보아 진사에 장원 급제 하였다. 정조대왕이 그를 탑전까지 불러 올려 기특하고 귀엽게 여겨 그를 어루만지고 그의 손목을 붙잡고 "네가 20세가 되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네게 높은 벼슬을 주고 네게 나라의 큰 소임을 맡기겠노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사영은 임금님이 만지신 손목을 붙은 비단으로 감아서 만지지 못하게 하였고, 학문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하여 당시 나라에서 유명했던 마재 정씨 가문을 찾아 악종의 문하생으로 들어갔다. 정약종은 이미 천주교를 믿고 있었으며 그의 성세 본명은 아오스딩이고 명도회의 회장이었다. 그는 사영의 지혜와 총명에 실로 놀라마지 아니하였고 나라의 큰 벼슬을 하도록 가르치기보다 장차 교회의 큰 일꾼을 만들 야심으로 사영의 심리동태를 오랫동안 면밀히 살펴보았다. 사영은 악종의 형인 약현의 장녀와 결혼하고 선생이요, 처삼촌인 아오스



딩으로 부터 이미 감화되어 성교의 진실함을 터득하였고, 주문모 신부께로 인도되어 영세 입교하여 알렉시오의 세례명을 받았다. 알렉시오는 이때부터 세속의 공명과 영화는 뜬 구름같이 여겨 교리 연구에만 열중하였고, 교회 안에서도 회장직을 맡아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이렇게 되고 보니 그는 임금의 총애와 특혜에는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하였다. 정조대왕은 사영이 천주학을 신봉한다는 소식에 적이 못마땅하게 여겨 불쾌한 듯 하였으나 젊은 사람이 공명을 그처럼 마다함에는 속으로 깊이 감탄하였다. 임금의 사랑을 톡톡히 받게 될 사영에게 크나큰 기대와 희망을 걸었던 그의 친인척들은 몹시 그를 원망하고 미워하였다. 1801년 박해가 일어나자 그는 그 해 정초에 지명수배 되어 스승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이곳 저곳 도피하다 10일 이내로 체포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망명의 길을 떠났다. 남이 자신을 알아보기 쉬웠던 탐스러운 수염을 자르고 상복을 입고 2월 15일, 서울을 빠져나와 경상도와 강원도를 거쳐 마침내 제천 배론 교우촌에 숨어들었다. 이곳에서 '이상주'로 이름과 성을 바꾸고, 웅기정 옆에 토굴을 파 그 속에서 8개월간 은거하며 김한빈(베드로)와 황심(토마스)을 외부 연락원으로 교회 소식을 듣고 하였다. 8월 23일 황심으로 부터 주 신부의 자수와 그의 처형 소식을 듣고 낙심 끝에 의분을 이기지 못하고 북경 주교께 올리는 탄원서를 명주에 써 옷 속에 넣어 황심과 옥천회를 시켜 북경으로 보내기로 계획을 짰는데 9월 25일 황심이 먼저 잡히고 4일 후 사영이 잡힘으로 백서는 물론 모든 비밀이 그 주인(황사영)과 함께 포도청으로 압송되었다. 10월 3일, 의금부로 이송되어 23일간 취조와 형벌 끝에 11월 5일, 대역부도 죄인으로 29세의 나이에 극형에 처단 되었다.

◆ 묘재 성 남종삼 요한 유택지 ◆

주 소 :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326-1

연락처 : (043)651-4730 (033)763-2343



고속도로 원주 출구에서 약 30Km, 철도와 국도가 인접 병행되는데서 약 300m 떨어진 왼편 첫 집이 강당이고, 인접한 작은 집의 지붕에 십자가들이 보인다. 성인 남종삼 요한은 남향교의 아들로써 종형 상교의 양자로 들어갔고 양가가 다 천주교에 입교하여 자기도 요한의 교명으로 영세하였다.

그는 1838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승진을 거듭하며 승지가 되면서 정3품까지 올랐다. 상교아오스당은 충주 목사를 지낼 때 미신 행위를 해야만 해서 신앙생활에 저촉되므로 벼슬을 그만두고 배론 산넘어 묘재라는 곳으로 이사하여 세속과 인연을 끊고 살았다. 종삼(요한) 또한 현감직을 수행하는데 청렴결백하고 선정을 베풀므로 지방민의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향교 제사에 불참함으로 말썽이 일게 되자 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때에 두만강을 새에 둔 큰 나라 러시아는 1860년경 연해주에 블라디보스톡 항구를 구축하고 조선을 먹어볼 차비를 해 1864년 2월에 5명의 러시아인이 얼음을 타고 건너 경흥으로 와 통상을 요구하자 이에 당황한 대원군은 어떤 고관을 통하여 국내에 와 있는 불국인 천주교 주교가 러시아인들을 물러나게 해주면 신교 자유를 주겠다는 뜻을 말하였다. 또 1865년 9월에 러시아인 수십 명이 두만강을 건너와 중국인 한 사람을 시켜 필담을 통해 국서를 가지고 함경도 감사 방문을 요구 하였다. 급보를 전한 대원군은 크게 놀랐고 장안은 술렁거렸다. 이 때, 김면호 토마스가 러시아인들을 몰아낼 대책의 건의서를 써 대원군에게 올렸으나 묵살 당하게 되었다. 내용인 즉, 국내에 있는 불국 주교의 주선으로 불국, 영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이다. 이에 흥 토마스 봉주가 남승지를 찾아가 새로운 건의문 작성을 부탁하였다. 그는 새로운 건의문을 가지고 직접 대원군에게 바쳤다.

대원군은 그 건의서를 읽고 만족하여 주교를 빨리 만나게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그 때, 장 주교는 북쪽에서, 안 주교는 남쪽에서 전교 중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안 주교는 1866년 1월 25일(음 1865년 12월 9일)에, 장 주교는 이보다 나흘 후에 돌아왔다. 음력 12월 15일 남승지가 이 소식을 전하러 운현궁으로 대원군을 찾아갔더니 자기도 알았다고 하면서 급하지 않으니 두었다가 보자고 하며 아주 냉대하고 물러가게 하였다.

주교가 당장 서울에 없어 한탄하며 빨리 기쁘게 만나고 싶다고 부탁까지 했던 대원군이 십 여일 만에 돌변하며 박해자 폭군으로 등장하였다. 종삼은 20일간 묘재집에 있었다. 그동안 서울에서는 박해가 일어나 장 주교와 몇몇 교우들이 잡혀 옥에 갇혔다. 종삼은 서울에 올라오는 도중 1866년 3월 1일(양력) 체포되어 의금부에 수감되어 다음 날부터 혹독한 문초를 받았다. 죄인 남종삼을 당일 처형하기로 상신, 즉 사형 언도문이 내려 처단되고 그의 노부, 부인, 자녀와 친족들이 모두 귀향에 처벌되고 재산마저 몰수 되었다. 청령에 귀향 갔던 둘째 아들 방지거는 탈출하여 서울로 가 결혼을 하여 아들 상청을 두어 남씨 집안의 대를 이었다.

남종삼 요한은 1968년 병인 순교자와 더불어 복자품에 오르셨고, 1984년 5월 6일 성인품에 오르셨다.



◆ 풍수원 성당 ◆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2리 1097

연락처 : (033)343-4597

1801년 신유박해 이후 1802년 혹은 1803년 경, 경기도 용인에서 신태보(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 40여명의 신자들이 8일 동안 피난처를 찾아 해마다 정착한 곳이 바로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앙촌인 풍수원이다. 풍수원에서 80여년동안 신자들은 성직자 없이 신앙생활을 영위해 오다 1888년 프랑스 성직자 르메르 이 신부를 맞이하여 정식으로 교회가 설립되었다. 1866년(고종 3년) 교회 대박해(병인년)와 1871년(고종 8년) 신미양요 때 신자들이 피난처를 찾아 해매던 중 산간벽

지로서 산림이 울창하여 관헌들의 눈을 피하기에 알맞는 곳이라 사방으로 연락하여 신자들을 모아 한 촌락을 이루어 일부는 화전으로, 일부는 토기점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20여년간을 지내다 1888년 6월 20일 조선교구장 블랑주교께서 본당을 설립하고 초대 주임신부로 프랑스 르메르 이 신부가 부임하여 춘천, 화천, 양구, 홍천, 원주, 양평 등 12개 군을 관할하였으며 당시 신자 수는 약 2,000여명 이었고 초가집 20여 간을 성당으로 사용하였다.

1896년 2대 주임으로 정규하(아우구스티노)신부가 부임하여 중국인 기술자 진베드로와 함께 현재의 성당(벽돌 연와조 120평)을 1905년에 착공, 1907년에 준공하여 1909년에 민대주교에 의해 축성식을 가졌다.

신자들이 벽돌을 굽고 아름드리 나무를 해오는 등 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하였다. 풍수원 성당은 한국인 신부가 지은 한국 최초의 성당이며 강원도 최초의 성당이고 한국에서 네 번째로 지어진 성당이다. 강원도 전체와 경기도 일대의 성당은 풍수원 성당에서 분당된 것이며, 본 성당은 지난 1982년 강원도에 의해 '지방문화재 제 69호'로 지정된 바 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을 기해 1920년에 제 1회 성체대회가 실시되어 매년 행사가 치뤄지고 있다. (단, 6·25 동란으로 3년간 본 행사가 치뤄지지 못했다.) 신앙의 요람터요, 선조들의 열이 담겨져 있는 역사의 현장인 이곳에서 30여명에 달하는 한국인 사제들이 탄생된 풍수원은 참으로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땅이라 하겠다.

◆ 용소막 성당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용암 2리 719-2

연락처 : (033)763-2341

용소막 본당은 강원도에서 풍수원, 원주에 이어 세번째로 창설되었다. 이 교회의 개척자는 최석완(바르바라)인데, 1848년에 태어나 18세에 르메르 이 신부로부터 전교회장에 임명되어 각처를 다니며 전교하다 1898년에 용소막에 정착, 5~6명의 교우들과 작은 경당을 짓고 원주본당 소속 공소를 설립하였다. 1904년 5월 22일 용소막 공소는 원주본당에서 분리, 초대 주임 프와오 신부가 부임하여 용소막 본당으로 발족하였다.

1910년 4월, 제 2대 주임신부로 부임한 기요 신부는 새 양옥 성당 건립을 계획·추진하던 중 1912년 7월, 1차 세계대전 발발로 8월에 본국 프랑스 군대에 소집되어 귀국하고, 제 3대 주임 시잘레 신부는 기요 신부의 성당 건립 계획을 실천에 옮겨 1914년 가을에 묘재 공소 이석연 회장의 소개로 중국인 기술자들을 고용, 1915년 가을에 건평 100평의 벽돌 양옥 성당을 신축하였다. 6·25 통란 때 성당이 일부 파손되었으나, 제 8대 주임 이종홍 신부가 성당과 사제관을 원상 복구하였다.

이 성당은 1982년 강원도에 의해 '지방유형문화재 제 106호'로 지정된 바 있다.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원주교구는 1969년 12월 7일 사목위원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에 장화순 베드로를 선임함. 지도신부는 집단지도 체제로 함.

❖ 1977년 3월 26일 원주교구는 사목위원회를 평신도사도직협의회로 개편하고 김용연 요한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김지석 야고보 신부를 지도신부로 명함

❖ 역대 지도신부(담당신부)

	지도신부(담당신부) 이름	임 기	비 고
초대	이영섭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민요셉, 이학근, 김종태, 정례오	1969.12.07. ~	집단지도
02대	이영섭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민요셉, 이학근, 김종태, 정례오		집단지도
03대	이영섭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양대석, 이학근, 정례오, 최기식, 모티머	~ 1971.12.31.	집단지도
04대	양대석 (알로이시오)	1972.01.00. ~ 1976.04.18.	
05대	김지석 (야고보)	1976.04.19. ~ 1977.03.25.	
06대	김지석 (야고보)	1977.03.26. ~ 1979.03.12.	평협 창설
07대	이흥근 (마르코)	1979.03.13. ~ 1981.04.22.	
08대	최기식 (베네딕도)	1981.04.23. ~	
09대	최기식 (베네딕도)	1982.07.13. ~	
10대	신현만 (시몬)	1983.07.14. ~ 1986.09.15.	
11대	이학근 (베네딕도)	1986.09.16. ~ 1989.02.17.	
12대	이학근 (베네딕도)	1989.02.18. ~ 1991.04.09.	
13대	박순신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1991.04.10. ~ 1993.02.22.	
14대	김한기 (시몬)	1993.02.23. ~ 1998.11.10.	
15대	신현만(시몬)	1998.11.11. ~ 2003.01.14.	
16대	박상용(아오스딩)	2003.01.15. ~ 2007.09.11.	
17대	표신천(임마누엘)	2007.09.12. ~ 2008.04.29.	
18대	담당신부 김민규(요한)	2008.04.30. ~	

❖ 역대 회장 (1969~ 현재)

	성 명 (세례명)	본 당	지도신부	임 기
※ 원주교구 사목위원회 창립 (1969.12.07.)				
초대	장화순(베드로)	봉산동	이영섭	1969.12.07. ~ 1972.01.25.
02대	장일순(요한)	봉산동	양대석	1972.01.26. ~ 1974.01.27.
03대	장일순(요한)	봉산동	양대석,김지석	1974.01.28. ~ 1977.03.26.
※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하 평협) 창립 (1977.03.26.)				
04대	김용연 (요한)	봉산동	김지석	1977.03.26. ~
05대	김용연 (요한)	봉산동	김지석	~ 1979.03.16.
06대	김용연 (요한)	봉산동	이흥근	1979.03.17. ~ 1980.03.22.
07대	김용연 (요한)	봉산동	이흥근	1980.03.23. ~
08대	김용연 (요한)	봉산동	최기식	~ 1982.03.00.
09대	김정하 (요한)	원동	최기식	1982.03.00. ~
10대	김정하 (요한)	원동	최기식,신현만	~ 1983.12.11.
11대	박화용 (바오로)	원동	신현만	1983.12.12. ~
12대	박화용 (바오로)	원동	신현만	
13대	박화용 (바오로)	원동	신현만	~ 1986.01.00.
14대	박화용 (바오로)	원동	신현만,이학근	1986.01.00. ~
15대	박화용 (바오로)	원동	이학근	~ 1988.02.00.
16대	김인성 (바오로)	단구동	이학근	1988.02.14. ~ 1989.02.00.
17대	김인성 (바오로)	단구동	이학근	1989.02.00. ~
18대	김인성 (바오로)	단구동	박순신	~ 1992.01.22.
19대	백주현 (토마스)	봉산동	박순신,김한기	1992.01.23. ~ 1994.01.00.
20대	이계열 (아우구스티누스)	단구동	김한기	1994.01.00. ~ 1996.03.00.
21대	이계열 (아우구스티누스)	단구동	김한기	1996.03.00. ~ 1998.02.08.
22대	정운주 (마티아)	단구동	김한기,신현만	1998.02.09. ~ 2000.02.00.
23대	김정하 (요한)	원동	신현만	2000.01.00. ~ 2002.01.00.
24대	엄증관 (토마스)	원동	신현만,박상용	2002.01.00. ~ 2004.01.00.
25대	원규희 (안토니오)	태장동	박상용	2004.01.00.~ 2006.01.00.
26대	윤봉옥 (요셉)	원동	박상용	2006.01.00. ~ 2008.01.00.
27대	이병두 (에드몬드)	의림동	김민규	2008.01.00. ~ 2010.01.00.
28대	이병두 (에드몬드)	의림동	김민규	2010.01.00. ~ 2012.01.00.
29대	강호석 (루치아노)	단구동	김민규	2012.01.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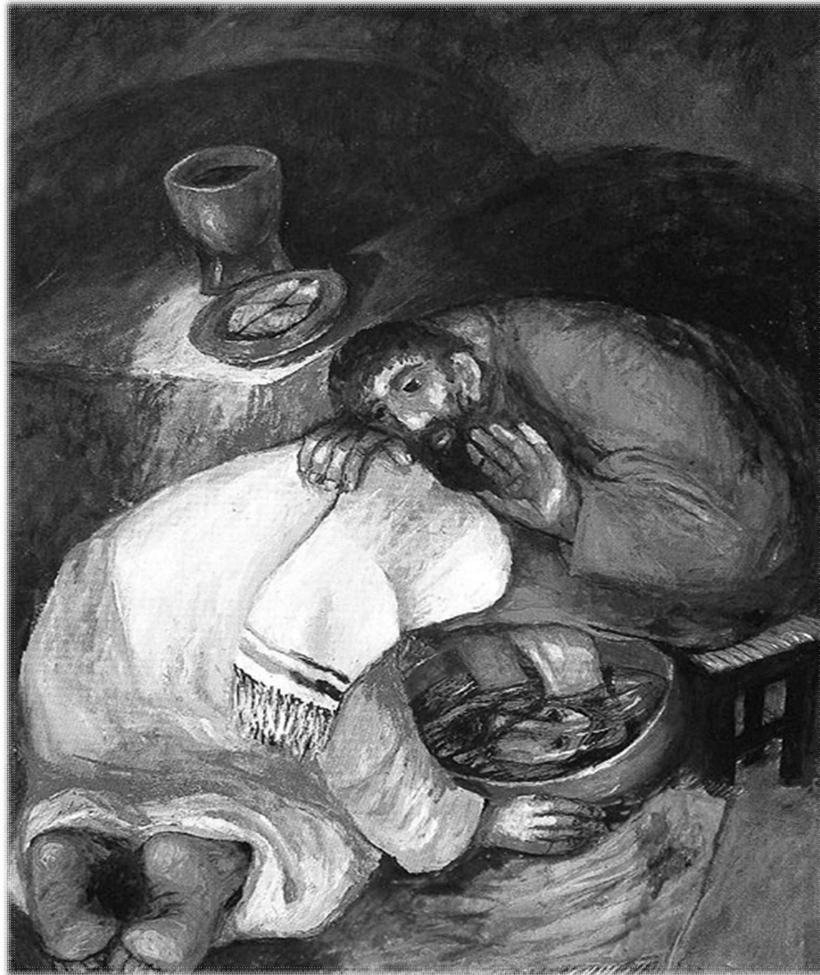
 2014년 원주교구 평형 위원명단

직 책	성 명	세레명	본 당	직 책	성 명	세레명	본 당
회 장	강호석	루치아노	단구동	사회복지위원장	이대환	프란치스코	태장동
부회장	엄운호	보나파시오	일산동	사회복지부위원장	이태진	시몬	태장동
부회장	이재구	아우구스티노	청전동	가정사목위원장	조동익	스테파노	구 곡
부회장	지연자	아녜스	구 곡	여성사목위원장	지연자	아녜스	구 곡
사무국장	신동주	야고보	단구동	여성사목위원	차명순	안나	원 동
사무차장	도호병	요셉	봉산동	여성사목위원	정찬아	글라라	봉산동
총무위원장	성낙준	바오로	단구동	여성사목위원	서은자	말가리다	명륜동
총무부위원장	진의숙	요셉피나	학성동	감 사	정인재	스테파노	원 동
전례위원장	이향미	베로나카	원 동	감 사	이옥수	갈리스도	원 동
전례부위원장	이종석	요한	원 동	원동사도회장	이종학	바오로	원 동
홍보위원장	조종만	필립보	봉산동	원주1지구회장	장시경	레오나르도	구 곡
홍보부위원장	백정현	임마누엘	태장동	원주2지구회장	송두식	바오로	학성동
교육위원장	이상중	이사악	단구동	형성지구회장	고명규	베르나르도	형 성
교육부위원장	조명희	레지나	형 성	제천지구회장	김형구	테오파노	남천동
장학위원장	김미선	베로나카	명륜동	영평지구회장	신주선	마르첼리노	정 선
장학부위원장	김영숙	율리안나	구 곡	영동지구회장	권혁삼	레오나르도	성내동
선교위원장	박덕구	안셀모	원 동	태백지구회장	백태욱	스테파노	장 성

 교구단체현황

단 체 명	성 명	본 명	단 체 명	성 명	본 명
수도자연합회	장운진	보 나	노인연합회	정운주	마 티 아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지학순다니엘장학회	강호석	루치아노	M·E	이승환 황영숙	요 셉 루 피 나
여성연합회	지연자	아 네 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이대환	프란치스코
공소사목협의회	김세원	엘리시오	성령쇄신봉사회	정운경	토 마 스
가톨릭농민회	조성만	마 르 코	원주치명자의 모후레지아	박덕구	안 셸 모
대학생연합회			파티마세계사도직 원주지부	박경숙	리 오 바
가톨릭교수협의회	최 일	암브로시오	M·B·W	이재희	안 셸 모
가톨릭여교사회	임숙현	만 나	꾸르실료	이원삼	안드레아
가톨릭의사회	최경훈	마 르 코	선택 대표	진달래	사 비 나
가톨릭약사회	사회철	베네딕토	교정사목회	신재용	항감아우구스티노
가톨릭제약인회	유인규	보나파시오	시각장애선교회	조귀철	토 마 스
가톨릭간호사회	최혜정	아 가 다	연령회연합회	정응교	야 고 보
가톨릭미술가회	남경호	프란치스코	교구1일피정회	송혜경	젤뜨루다
가톨릭사우회	우재근	세례자요한	성체조배회	김일숙	모데스타
가톨릭온전가사사회	오병훈	베 드 로	가톨릭 법조인회	박동수	바 오 로
성우회	고명균	토마스아퀴나스			

나눔 자료



지그 피터(1925-), '베드로의 발을 씻는 예수'

2. 베드로의 발을 씻는 예수(유화, 개인소장, 독일), 지거 쿼더(1925-)

[성화 설명]

예수께서 최후만찬 중에 무릎을 꿇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작은 의자에 앉아 있는 베드로는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 예수님은 몸을 구부리고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화가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그리지 않고 베드로의 발이 담겨져 있는 대야의 물위에 비치게 그렸다. 2000여년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준 이 사랑의 행위는 오늘도 성체성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 예수께서는 성체성사에서 당신의 살과 피, 즉 생명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내어주고 있다. 화가는 이런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왼쪽 위에 성체와 성혈을 그려 넣었다.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 겹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요한 13, 12-17)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 서울평협 전국성지순례

‘하느님의 종’ 124위 시복감사와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기원 성지순례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여정으로 서울, 경상도, 강원도 일대의 9개 성지를 순례하는 ‘하느님의 종’ 124위 시복감사와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 기원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교구 사목국 차장 이정준 신부와 평협 임원, 일반 참가자 등 40여 명이 참여하는 성지순례는 첫날 명동성당 지하성당에서 출발해서 대구 관덕정 순교성지와 복자성당을 순례하고 둘째날 부산 수영 장대골성지와 죽림굴도보순례, 명례성지를 셋째날 배론성지와 감곡 매곡 성모순례지를 순례하고 서울 서소문 순교성지에서 마침전례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순례를 함께한 참가자들은 앞으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감사하고 행복한 순례 여정이었음을 나누고 앞으로 시복시성 운동에 앞장서면서 신앙선조들과 같이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 ‘공의회학교’ 14주간 수료식

서울평협이 주최하는 2014년도 ‘공의회학교’가 총 14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3월 3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까지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을 공부하는 교육에서 총 58명이 참가하여 48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 제8회 우리성가 작곡공모 수상자 결정, 시상식 미사봉헌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가 주최하는 제8회 우리성가 작곡공모의 수상자가 결정됐다. 서울평협이 우리의 정서에 맞는 성가개발을 육성하고 본당 성가대가 부를 수 있는 전례곡의 창작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온 우리성가 작곡공모의 올해 최우수상은 ‘주님의 사랑’을 작곡한 전수진 아녜스(서울대교구 수궁동 성당) 씨 등 최우수상 1편과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을 선정했다.

추계예술대학교 김혜자 교수, 독일 브레멘대학교 박영희 교수, 한국종합예술대학교 허영한 교수, 한양대학교 이경미 교수가 심사를 맡은 이번 공모에서는 총 24편이 응모되었다. 심사위원들은 윗수를 거듭하면서 작품들이 선율과 가사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으며, 성부도 적절히 사용하고 있어 합창곡으로 부르기에 좋은 곡들이 많았다고 심사평을 했다. 발표회를 겸한 시상식을 7월 2일 명동성당에서 총대리 조규만 주교의 주례로 미사로 봉헌했다.

최우수상 : 「주님의 사랑」 전수진(아녜스, 서울대교구 수궁동 성당)

우 수 상 : 「주님의 사랑」 김드리(프란치스카, 서울대교구 명일동 성당)

「피에타의 성모」 최미설(라파엘라, 서울대교구 목동 성당)

장 려 상 : 「피에타의 성모」 김현정(멜라니아, 서울대교구 후암동)

「사랑의 손길로」 윤은희(로사, 서울대교구 방배4동 성당)

「주님의 사랑」 정규원(스텔라, 서울대교구 세종로 성당)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 교황님 방한 준비 사목위원 연수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이명수 아벨, 담당: 김명현 신부)는 5월 17일(토) 10시 대전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125개 본당 사목위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당 사목위원 교황님 방한 준비 연수”를 개최했다.

유 주교님은 미사 강론에서 “교황님의 한국 방문은 성령께서 이끄신 일임을 느꼈고 이번 교황 방문을 계기로 돈과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며 달려온 삶을 반성하고 새롭게 더불어 사는 영적이고 윤리적인 인간 존엄성을 되찾는 은혜로운 시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연수는 교구에서 개최하는 AYD(아시아청년대회), KYD(한국청년대회)에 함께 하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맞이하고 대전교구 신자들과 교황님이 함께하는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를 준비하기 위한 연수로 오전에 청소년사목국장 박진홍신부의 “AYD, KYD 준비 현황” 발표와 사무처장 김춘오 신부의 “교황님과 대전교구 신자들이 함께 하는 미사 (대전 월드컵경기장) 준비”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오후에는 대전교구 교황방문준비위원회 의전담당 한정현 신부의 “프란치스코 교황님 방한과 우리의 자세”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또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님의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과정과 방문 발표 이후 이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설명과 파견 미사가 이어졌다

▸ 홍성지구 한생명 운동 실시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한생명운동 본부(담당:김명현신부,회장:이명수)는 4월 한달간 홍성지구(지구장:맹세영신부) 홍성성당을 비롯한 각 본당에서 한생명 운동 “생명과 사랑 나눔”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대전서부지구 한생명 운동 실시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한생명운동 본부(담당:김명현신부,회장:이명수)는 6월 14일(토) 대전서부지구(지구장:김용남신부) 탄방동성당에서 한생명(헌혈.장기기증.조혈모세포기증) “생명과 사랑 나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그동안 한달여간 서부지구 각 본당에서 캠페인을 홍보하고 신자들의 참여를 권장하였으며, 장기기증희망 신청 뿐 아니라 조혈모세포기증을 해주기를 젊은 청년들에게 청년담당 신부님과 청소년분과장을 통한 적극 홍보를 하여 이번 행사에는 조혈모세포 기증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20~30대 젊은 청년들은 헌혈과 동시에 조혈모세포 기증도 할수 있으며, 조혈모세포 기증은 건강한 사람의 조혈모세포를 백혈병이나 혈액암 환자에게 기증해 새 생명을 얻게하는 일이며, 기증 희망 등록으로 누군가에게 생의 마지막 남은 소중한 희망이 될 수 있는 뜻깊은 일이다.

▸ 교황 방문 기념 및 AYD.KYD 축하음악회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을 앞두고 대전PBC 칸타빌레 챔버오케스트라가 주최하고 천주교 대전교구 청소년사목국,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순수예술기획이 기획한 명품 클래식 공연인 “The Peace”가 6월 4일 오후 3시와 7시 30분에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관객들을 맞이했다.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님은 축사에서 '교황님 방문기념 및 AYD·KYD 축하음악회' 개최를 축하하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대전교구 방문을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처럼 은혜로운 교황님의 방한을 준비하면서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와 청소년사목국이 우리의 기쁜 마음과 설렘을 음악회를 통해 표현함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 “서로 어울리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기적을 만들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합창과 오케스트라처럼 서로 어우러져 사랑과 화합, 일치를 세상에 외쳐보자”고 당부했다.

또 유 주교님은 “선거를 통하여 새로이 선출된 분들은 인간을 존중하고 모든 이들에게 유익함을 가져오는 공동선과 참된 인간적인 가치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희망하며 특별히 정직하고 투명하게 국민을 섬기고 나누는 자세로 봉사하시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교황의 방문을 기념하고,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AYD)와 제3회 한국청년대회(KYD)를 축하하는 음악회인 “The Paece”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감동과 화합의 장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준비됐다.

대전PBC 칸타빌레 챔버오케스트라와 대전가톨릭 챔버오케스트라의 협연과 함께, 대전가톨릭 소년소녀합창단, 천주교 대전교구 합창단 도나데이, 천안지구 앗숨 합창단, 서산지구 유빌라테 합창단 .대전PBC 여성합창단. 대전남성합창단 아모르, 폴리칸타레 합창단, 전민동성당 성가대 등이 참여해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줬다.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1. 임원회의 개최 : 5월 10일(토), 6월 7(토) 교구청 3층회의실
영성지도신부님과 임원 8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장 연수 개최 준비 및 현안 문제를 논의하였다.
2. 교구행사 참석 : 4월 17일(목) 성유축성미사, 정자동주교좌성당
4월 24일(목) 최윤환 몬시뇰 금경축 축하미사, 정자동성당
6월 19일(목) 안산대리구장 신부님 취임미사, 대학동성당
6월 20일(금) 안양대리구장 신부님 취임미사, 중앙성당
이상 교구 행사에 참여하여 축하를 드렸다.
3. 고 양병묵 신부님 장례 집행 : 5월 20~22일 장례 및 23일 삼우
수원교구 평협은 장의위원회 집행위원으로 고 양병묵 신부님의 장의실무를 담당하며
집행하였다.
4.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애도미사 협조 및 참석
수원교구에서는 5월부터 현재까지 안산화랑유원지에 천주교 부스를 설치하여 조문객을
맞이하고, 야외음악당에서 애도미사를 드리는데 교구 단체가 돌아가면서 봉사하였다.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 순례길 ‘김기량길’ 선포식 및 개통식 거행

제주교구는 6월 21일 10시30분에 성지순례길(김대건길, 정난주길, 김기량길, 신축화해길, 하논성당길, 이시돌길)중 하나인 ‘김기량길’ 선포식과 개통식을 거행하였다. 김대건길(2012.09.15), 하논성당길(2013.04.20)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날 행사에는 제1부 선포식 감사미사, 제2부 표지석 제막식, 제3부 김기량길 걷기 순으로 진행되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1100명의 신자가 참여하였으며 특히 교황 방한에 앞서 한국특집을 기획하고 있는 ‘프랑스 가톨릭TV(LA FRANCE CATHOLIQUE TV)에서 파견된 기자가 전 일정을 취재하기도 했다.

오는 8월 16일 시복예정인 제주의 첫 순교자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의 순교정신을 기리는 ‘김기량길’은 조천성당을 출발해 조천포구, 연복정-관곶-신흥포구-함덕해변-김기량 생가(추정)-김기량 현양비에 이르는 9.3Km로 조성된 영광의 길이다.

▸ 재해구호 봉사단 연합회 ‘재해재난 예방교육’ 실시

제주교구 재해구호봉사단 연합회 (회장 임시흥, 담당사제 김창훈신부)는 본격적인 태풍 발생 시기를 앞두고 6월 29일 오후 2시30분 가톨릭회관 2층 대강당에서 재해재난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태풍피해 예방과 위기관리 요령’을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총괄기획관이 진행한 이날 교육에는 각 분과별 위원장, 각 본당 평협회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등 90여명이 참가했다.

총대리 김창훈 신부는 새로이 선출된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항상 깨어있어라’라는 성경말씀처럼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태풍에 대비하고 본당에 가서도 오늘 교육 내용을 잘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였다.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 세월호 사고, 진도 팽목항 미사

천주교광주대교구(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에서는 지난 4월 16일 진도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고통 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뜻으로 진도 팽목항과 실내체육관에서 천주교 천막성당을 설치하고 매일 두 차례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사고 이후 팽목항 현장에서는 교구 내 본당별로 많은 신자들이 참석해 기도와 미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가톨릭 상장례봉사자회 회원들이 희생자 시신을 수습하는 봉사를 하고 있다.

<미사 안내>

·진도 팽목항 : 매일 오후 4시

·진도 실내체육관 : 매일 저녁 8시

(미사 1시간 전에 연도와 묵주기도 봉헌)

▸ 5.18민중항쟁 34주년 기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미사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영선 신부)는 5월 19일 남동 5.18기념성당에서 ‘기억과 식별 -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에페 5,14)’라는 주제로 5.18민중항쟁 34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고 민중항쟁 당시를 기억하며 주먹밥 나눔을 하였다.

이어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혼을 구혼하기 위한 추모리본걸기, 위령기도와 묵주기도를 드리고 체험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 이웃종교화합 심포지움

광주종교인평화회의(KCRP)는 6월 13일 원효사에서 천주교를 비롯한 4대 종단(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름이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이웃종교화합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김영태 교수(전남대 명예교수)의 “이웃 종교의 이해와 상생 방안”에 대한 특강이 있었으며, 이어 토론과 나눔으로 종교간 친화의 시간을 가졌다.

▸ 제2차 상임위원회

광주평협(회장 나현식, 담당사제 우원주 신부)은 6월 14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인 ‘주교님과 함께 걷는 도보성지순례’와 ‘평신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교황님의 방한에 대한 일정과 시복식 미사에 참석하기 위한 이동방법, 참석자 안전에 대한 방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 여성을 위한 하루피정

광주대교구 여성위원회(위원장 홍순덕, 담당사제 우원주 신부)는 5월 22일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각 본당 사목협의회 여성 임원 및 단체장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을 위한 하루피정’을 가졌다.

이번 피정에서는 김계홍 신부(피아골피정집 관장)의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김인국 신부(청주교구 옥천본당 주임)의 “신앙과 사회정의”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우리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 신자들은 피정을 통해 여성의 고유한 역할에 대해 다시금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다.

▸ 장성지역 도보성지순례의 길 개발

광주평협(회장 나현식, 담당사제 우원주 신부)은 5월 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장성지역 옛 교우촌을 찾아 둘러보고 도보성지순례의 길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곳 장성 북부지역은 노령산맥의 끝자락에 위치한 곳으로 북이면, 북이면, 북하면 일대는 산이 아름답고 물이 맑아 사람살기 좋은 곳이라 알려져 왔으며, 19세기 초부터 여러 곳에 교우들이 마을을 형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이 지역에 세워진 공소가 26개나 된다. 이번 일차적으로 추진될 도보성지순례 코스는 매남공소를 출발하여 몇몇 교우촌과 성진원 공소를 거쳐 다시 매남공소로 되돌아오는 약 13Km의 거리이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 세월호 참사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촉구 천만인 서명 운동 동참

5월 26일 교구 내 본당 47개소 사도회장 앞으로 '세월호 참사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촉구 천만인 서명' 참여를 위한 협조서한과 서명양식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6월 18일 자체 마감일까지 취합된 서명지는 총 203매, 서명인 3,596명이었으며, 6월 21일 원주지역에서 서명운동을 위해 온 대책위원회에 직접 전달하였다.

◆ 한국 가톨릭 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

▸ 전국 시각장애인 레지오마리에 피정

일시 : 5월 27일(화)~28일(수)

장소 : 성 라자로마을 아론의집(경기도 의왕)

주최 :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대상 : 각 교구 선교회 레지오 단원 및 일반 회원, 봉사자(총 150명 참석)

내용 : 미사, 강의, 레지오 활동보고, 기도, 찬양 등

◆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

▸ 제 22차 전국 꾸르실료 주간단 회의

○ 일 시 - 2014년 5월 10일(토) ~ 11일(주일)

○ 장 소 - 광주대교구 문흥동성당

○ 참석교구 - 12개 교구 21명

➢ 서울대교구(3), 대교대교구(1), 광주대교구(3)

➢ 부산교구(1), 인천교구(3), 대전교구(1), 전주교구(1), 마산교구(3)

➢ 청주교구(2), 원주교구(1), 안동교구(1), 제주교구(1)

○ 주요논의사항

➢ 필리핀 다바오 회의 참석일정/계획 설명 및 참석 유무 확인

➢ 실천표 신심의 길 중 영적지도를 영적지도(고해성사)로 변경

▸ 꾸르실료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제45차 협의회 총회 승인 꾸르실료 운동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의 일환

○ 실시현황 2014.05.24(토) 14:00~18:00 서울대교구 간사 간담회

 2014.06.21(토) 14:00~18:30 전국협의회 임원 간담회

 2014.07.05(토) 14:00~18:30 서울대교구 봉사자 간담회

○ 예정사항 2014. 9월 : 서울대교구 청년 꾸르실리스타 간담회

 2014.10월 : 서울대교구 사무국 임원 간담회

▸ 봉사자 형성 교본 출간

○ 제45차 협의회 총회 승인 사항 (2,000권 기준 예산 400만원)

○ 교본 발행 관련 필요 승인서 취득 완료

➢ 출판 승인서 (서울대교구 교구장)

➢ 저작권 사용 승인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이사장)

○ 7월중 제3차 개정판 2,000권 발행 진행중 (가톨릭출판사)

○ 총 소요비용 : 390만원

2014년도 제2차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자료

1. 시작기도 :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기도 (p.46)

2. 성원 보고

3. 회장 인사

4. 전차회의록 낭독

5. 보고사항

가. 생명대행진 참가: 4월 13일, 청계광장

나. ‘인물탐구, 20세기 이 땅의 평신도’ 발간사업: 기획위원장 보고

- 7월 25일까지 인물선정을 위한 추천을 마감하고, 명단 작성 후 집필자 공모하여 오는 평신도주일부터 평화신문에 연재
- 선정된 인물들에 대한 세미나 개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책으로 발간
- 각 교구에서 새로운 인물을 발굴, 교구장님께 보고한 후 많은 인물을 추천 바람

다. 평사연포럼 개최: 사회사도직연구소장 보고

- 제1차(3/25): 평신도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오용석 소장
- 제2차(4/24): 한국천주교 화해중재원 설립의 의의와 과제 / 선한승 원장
- 제3차(5/29): 평신도 통일사도직 수행을 위한 평화네트워크 구축의 현실과 과제 / 변진홍 부소장
- 제4차(6/26): 성 정하상 바오로의 영성과 현대 동아시아 복음화의 과제 / 정진호 위원

※ 학술지 ‘평신도연구’에 게재논문으로 활용됨. 연구위원뿐 아니라 각 교구에서 좋은 논문이 있으면 연구소로 연락 바람.

라.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사무총장 토소 주교와의 만남: 6월 26일

마. 계간 ‘평신도’ 여름호 발간

6. 논의사항

가. 한국평협 주관 「실천 캠페인」운동 제안(제안서 별첨)

나. 여성사도직활동 지원관련 추경예산안

- 기존 예산에서 103위 성인 시성 30주년 기념사업(500만원)과 시복시성기도운동(200만원)을 여성사도직활동 지원사업으로 변경

-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지원요청: 별지 참조
- 다. 제31회 가톨릭대상 운영에 관한 건

7. 예정사항

- 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8월 14~18일
- 나. 우눔옴네스 집행위원회 주관: 9월 20~27일, 서울대교구청 대회의실
- 다. 제3차 상임위원회: 9월 26~27일, 서울대교구 서울유스호스텔
- 라. 제5차 평사연포럼: 9월 18일 (목) 오후 4시, 서울 가톨릭회관 1층 대회의실
 - 주제: 가정폭력의 현황과 복음적 접근 / 이화우 위원

8. 기타사항

9. 담당사제 말씀

10. 마침기도

별첨

한 국 가 톨 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KOREA CATHOLIC WOMEN'S ORGANIZATION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107-23
천주교 마산교구청 내 여성협의회
Tel : 055)249-7116
C.P : 010-4543-5124
Fax : 055)249-7093
E-mail : martina1019@hanmail.net

2014. 6. 23

제 호 한가여협 14 - 5
수 신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님
제 목 2014년도 여성 사도직 활동비 지원 신청

† 찬미예수님

한국 교회와 평신도를 대표해서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회장님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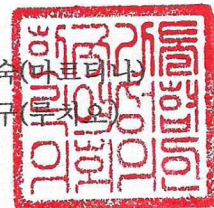
아뢰을 말씀은, 한국 가톨릭 여성단체협의회가 2014년도 하반기에 아래와 같이 사도직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교회 안에서의 여성 사도직 활성화를 위하여 경비를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하오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세계 가톨릭 여성연합회 세계총회 참가(별첨)
2. 전국 회원교육(별첨)

한국 가톨릭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한국 가톨릭 여성단체협의회 담당사제

김연숙(대표이사)
강영구(부대표)



2014년 하반기 한국 가톨릭 여성단체협의회 사도직 활동 계획서

1. 세계 가톨릭 여성연합회(WUCWO) 회의 참석

- (1) 일시 : 2014년 10월 22일 - 27일
- (2) 장소 : 포르투갈 파티마
- (3) 참석 : 권경수(헬렌) WUCWO 이사
- (4) 경비 : 항공료 3,500,000원 + 참가비 300불(307,500원) = 3,807,500원

2. 제2회 한가협 전국 회원 교육

- (1) 일시 : 2014년 10월 13일(월) 11:00 - 15:30 (강의와 미사)
 - (2) 장소 : 마산교구
 - (3) 주제 : 생명과 가정(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소명)
 - (4) 강사 : 송영오 신부(수원교구)
 - (5) 참석 : 10개교구 400여명 및 서울대교구 임원
 - (5) 예상 경비
 - ① 강사료 : 700,000원(강의요청서 첨부)
 - ② 장소사용료 : 300,000원
 - ③ 미사예물 : 200,000원
 - ④ 현수막 : 120,000원
 - ⑤ 점심 및 간식비 : 2,800,000원(400*7,000)
- 계 : 4,120,000원

전례 자료



지그 피터(1925-), '최후만찬'

3. 최후만찬(유화, 개인소장, 독일), 지거 쾨더(1925-)

[성화 설명]

독일의 화가 신부인 지거 쾨더는 이 작품을 표현주의 화법으로 그렸습니다. 어둔 밤 좁은 다락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는 예수님을 직접 그리지 않고, 성혈에 비친 얼굴을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축복을 주시며 이 작품을 보고 있는 우리의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성미술 감독 정웅모신부)

[말씀과 함께]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마르 14,22-25)

개 막 미 사

7월 11일(금요일) [(백) 성 베네딕토 아빠스 기념일]

♠ 입당성가 : 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1)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질그릇 같은 내 모습에 당신의 열을 채우소서
- 2)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오니
나의 이 마음 비추시어 눈같이 희게 만드소서

♠ 제1독서 <저희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다시는 “우리 하느님!”이라 말하지 않으렵니다.>

▣ 호세아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14,2-10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라. 너희는 죄악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너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와 아뢰어라.

‘죄악은 모두 없애 주시고, 좋은 것은 받아 주십시오. 이제 저희는 황소가 아니라 저희 입술을 바치렵니다. 아시리아는 저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다시는 군마를 타지 않으렵니다. 저희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다시는 ‘우리 하느님!’이라 말하지 않으렵니다. 고아를 가없이 여기시는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풀렸으니, 이제 내가 반역만 피하는 그들의 마음을 고쳐 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해 주리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 주리니, 이스라엘은 나리꽃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처럼 뿌리를 뻗으리라. 이스라엘의 싹들이 돋아나, 그 아름다움은 올리브 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으리라.

그들은 다시 내 그늘에서 살고, 다시 곡식 농사를 지으리라. 그들은 포도나무처럼 무성하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명성을 떨치리라. 내가 응답해 주고 돌보아 주는데, 에프라임이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싱싱한 방백나무 같으니, 너희는 나에게서 열매를 얻으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깨닫고, 분별 있는 사람은 이를 알아라. 주님의 길은 올곧아서, 의인들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죄인들은 그 길에서 비틀거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당신은 가슴속 진실을 기뻐하시고, 남몰래 저에게 지혜를 주시나이다. 우슬초로 정화수를 뿌리소서. 제가 깨끗해지리이다. 저를 씻어 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끄시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리라.
- ◎ 알렐루야.

♠ 복 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16-23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봉헌성가 : 가) 210번 나의 생명 드리니

- 1)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어 감사하는 맘으로 찬미하게 하소서
- 2) 나의 삶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어 선한 일을 하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 3)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어 주를 찬미하도록 깨어 있게 하소서

♠ 영성체송

주님은 당신 가족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어 줄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을 세우셨네.

♠ 성체성가 : 가) 156번 한 말씀만 하소서

- 1) 사랑의 주여 주님을 모시기에 부당하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조차케 되리이다 성체 성혈로 우리에게 오시어
영원한 생명 주는 신비한 사랑 새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하리다
- 2) 이 성체 안에 숨어 계신 예수여 연약한 죄인 엎디어 경배하리
떡과 술의 형상에 주 계심을 믿음으로만 깨닫게 되오니
굳건한 신앙 내게 내려주시어 영원히 주님 안에 살게하소서

♠ 마침성가 : 가) 2번 주 하느님 크시도다

- 1)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찻네
- 2) 저 수풀 속 산길을 홀로 가며 아름다운 새소리 들을 때
산 위에서 웅장한 경치 볼 때 냇가에서 미풍에 접할 때

후렴 :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느님 크시도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크시도다 주 하느님

파견미사

7월 12일(토요일) [(녹) 연중 제14주간 토요일]

♠ 입당성가 : 48번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 1)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주시으며 병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시도다
- 2) 주 우리에게 사랑의 새 계명 주시으며 희생과 봉사하는 삶 친히 보여 주시네
- 3) 주 우리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며 슬픔에 잠긴 자들을 품안에 안으소서

후렴 : 평화의 주여 들어 주소서 간절한 기도 들어 주소서

♠ 제 1독서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뵈다니!>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1-8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로는 사랍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여섯씩 가지고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녔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 바닥이 뒤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나는 말하였다. “큰일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뵈다니!”

그러자 사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그때에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내가 아뢰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이 차려입고 권능의 띠를 두르셨네. ◎
- 누리는 정녕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네. 예로부터 주님 어좌는 굳게 세워지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은 계시네. ◎
- 당신 법은 실로 참되며, 당신 집에는 거룩함이 서리나이다. 주님, 길이길이 그러하리이다. ◎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 알렐루야.

♠ 복 음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24-33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닢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봉헌성가 : 가) 215번 영원하신 성부

- 1) 영원하신 성부여 우리를 위하여 봉헌하는 이 예물 즐겨 받으소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
- 2) 예수 말씀 하시어 밀떡과 포도주 주님의 몸과 피로 변화 시키시네
내 몸과 마음 모두 주님께 드린 우리의 모든 일을 축복하옵소서

♠ 영성체송

주님, 당신의 기적들을 낱알이 전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

♠ 성체성가 : 가) 165번 주의 잔치

- 1) 축복받은 오늘이여 부당하온 이 죄인이 주의 잔치 참례하니 기쁨 어이 형언 하리
 - 2) 이 거룩한 잔치상에 어인 대접 이리 받나 주 예수 우리 이끄사 두려움 없이 하시네
 - 3) 희망으로 재촉하고 인자하게 부르시니 가볍고 미쁜 맘으로 주님 모시러 나가세
 - 4) 거룩하온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 우리 위해 희생되사 영혼의 양식 되시네
- 후렴 : 무한하신 주님 은혜 길이 길이 감사하리

♠ 마침성가 : 가) 31번 이 크신 모든 은혜

- 1) 이 크신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한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가난한 형제 찾아 복된 말씀 전하면 주 사랑 깨닫고 하느님을 뵈오리
- 2) 이 깊은 사랑 안에 하나 되었으니 이 세상 모든 이는 소중한 내형제
불목한 형제 찾아 평화 인사 나누면 주 사랑 깨닫고 하느님을 뵈오리

평신도사도직을 위한 기도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하느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어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어
교회와 사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실천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인생의 참뜻을 발견하고
세상의 온갖 유혹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인의 드높은 품위를 지켜가게 하소서.

○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도직에 부르셨으니
성령의 불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어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과 힘을 합쳐
이 세상에 진리와 자유,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아침 기도

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 아멘.

◎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뻐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아멘.

十 우리 주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굳셈이 있사오니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영원히 받으소서. ◎ 아멘.

十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주소서. ◎ 아멘.

그래도 사랑하라

마더 데레사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거라고 비난받을 것이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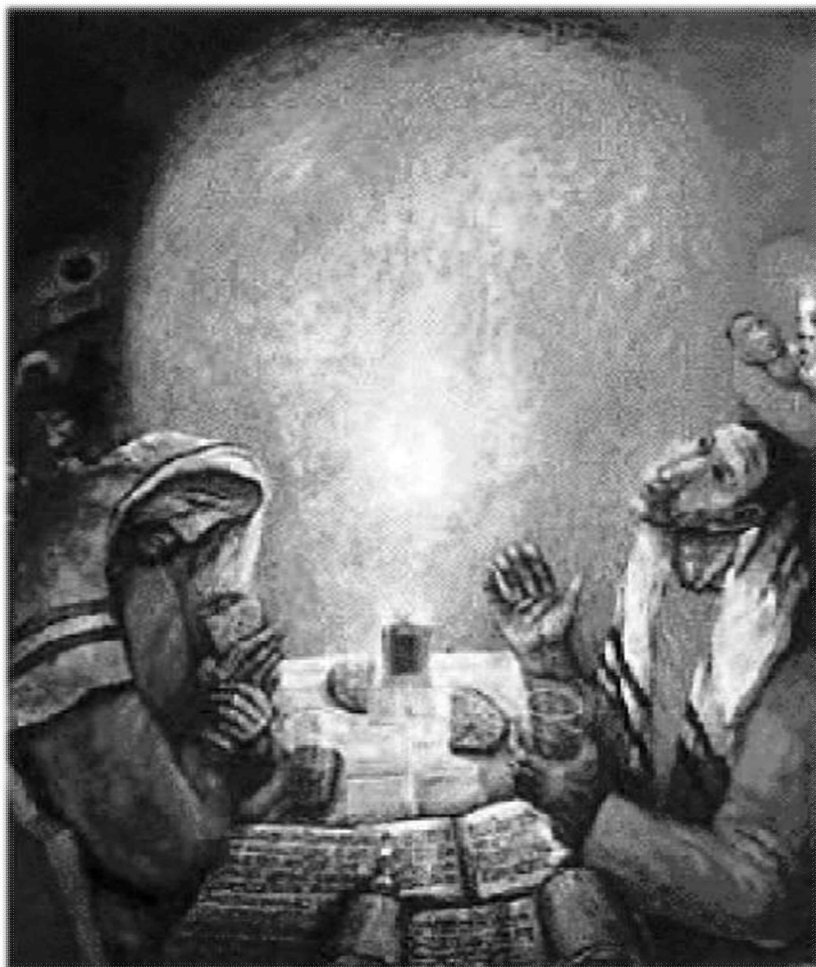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 모른다.
그래도 만들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 모른다.
그래도 도와주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 것이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라.



기타 자료



지거 쿠퍼(1925-), '엠마우스'

3. 엠마우스(제대화, 유화, 독일), 지거 쿵더(1925-)

[성화 설명]

그림에는 성경이 가운데 펼쳐져 있다. 이것은 성경의 뜻을 엠마오로 가는 여정 중에 함께 했던 부활하신 예수께서 깨닫게 해 주었음을 의미한다. 탁자 위에는 플라톤의 글이 적힌 두루마리도 함께 펼쳐져 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이와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벗어나셨다. 그러나 그분이 함께 했던 자리에는 아직 빵이 있고, 예수님을 위한 포도주잔도 있다.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04년 5월호에서)

[말씀과 함께]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굳뜨나?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루카 24,25-32)

MEMO